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서 법전 중정예하와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리나는 어린이들에게 불심을 키워주기 위한 마정수기 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신재호 기자

남북불교도 평화통일 '기원'

4일, 신계사에서 합동예불

남북 불교도들이 민족의 영산 금강산에서 민족 화해와 평화를 기원했다. 조계종 대표단과 조선불교도련맹은 지난 4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신계사에서 조국 통일을 기원하는 합동예불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대표단장 혜경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제정스님, 사회국장 묘장스님, 문화국장 묘정스님 등 대표단 10명과 리규룡 조불련 서기장, 차금철 부장, 성준일 부장, 김진산 스님, 유인명 스님 등 조불련 관계자 및 북측 불교신도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남북불교도들은 삼귀의와 반야심경을

각 관 계 개선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신계사에는 평화를 염원하는 300여개의 오색연등이 걸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오전 6시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출발한 대표단은 11시10분 경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2008년 7월 북한군 초병에 의한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망 사건 이후 관광이 중단된 육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북측 출입국 사무소에 다다르자 금강산 일만이천봉 끝자락 구선봉이 모습을 드러냈다. 작은 규모였지만 금강산의 웅장함을 짐작케 했다.

오후 12시, 운정각에 도착한 대표단은 조불련에 북측 고성 어린이들에게 지원



남북 불교도들이 신계사에서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합동예불을 봉행하고 있다.

“모든 중생은 불성 지닌 미완의 여래”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봉행
 “자성과 쇄신결사로 한국불교 거듭나자”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본말사에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하고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에 앞장서는 불자가 되길 서원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지난 10일 서울 조계사에서 1만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요식은 관불 및 마정수기를 비롯해 헌화 및 헌향·헌다, 불자대상 시상, 봉축사, 봉축법어, 남북공동발원문, 발원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법요식은 민족문화 수호활동과 자성과 쇄신 결사의 일환으로 정관계 인사 대신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타종교인을 초청해 부처님 오심을 축하하고 동체대비를 함께 화합하는 법식으로 마련됐다. 봉축위원회로부터 초청받지 않았지만 이날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인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 정관계 인사들도 조계사를 찾아 부처님오신날을 함께 했다.

아울러 정관계 인사들이 차지했던 법요식 특별단상에는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 이웃종교인, 외교사절단 등이 자리를 대신했다. 지리나는 어린이들에게 불심을 키워주기 위한 마정수기(摩頂授記)의식에서는 조계사 어린이와 더불어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원생을 초청해 다문화가정과 장애인의 불연(佛緣)이 더욱 더 깊어질 것을 기원했다. 이어 불기 2555년 불자대상 수상자인 배우 김혜옥 씨와 방송인 이수근 씨, 방귀희 숭실대학교 발원인, 이기흥 체육인복지연합회장, 김상기 육군참모총장, 패션디자이너 고(故) 양드레 김(아들 김중도 씨 대리 수상) 등에 상패를 수여하며 수상자들을 격려 및 위로했다.

조계종 법전 중정예하와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봉축법어와 봉축사를 통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

침대로 수행과 전범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 법전 중정예하는 봉축법어를 통해 “모든 중생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법신(法身)을 갖추고 있어 아름다운 불성을 지닌 미완의 여래”라며 “자성(自性) 밖에 진리가 없고 부처가 따로 없으니 찾으면 잃게 되고 구하면 멀어진다”며 부처님오신날을 참되게 기리는 일은 자신이 곧 부처님임을 바로 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잘못된 종교신념과 정치적 신념에 의해 사회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상대가 아닌 '우리'가 되어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나의 종교적 확신이 이웃에 대한 공격과 배타적 도구가 되어선 안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신념 또한 나를 드러내고 남을 구별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될 것”이라며 잘못된 종교신념과 정치적

신념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조계종은 스스로의 허물을 성찰하여 종교적 가르침을 사회에 회향하기 위해 자성과 쇄신 결사를 실천함으로써 한국불교가 새롭게 태어나고 국민들과 함께 더욱 밝은 광명의 세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요식은 남과 북이 같은 시간대에 '부처님오신날 봉축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동시법회'를 봉행해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고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남북공동 발원문을 공동명의로 발표했다.

이날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은 남북공동발원문에서 “거룩하신 부처님의 평화와 자비정신, 남북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자명명, 범등명으로 삼고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나가기 위해 수행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서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전국 주요 사찰에 우편으로 봉축메시지를 전달하며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했다. 이 대통령은 “1700년 역사속에서 민족과 기쁨과 아픔을 함께 해온 한국불교의 찬란한 전통문화와 예술은 우리 민족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렸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 이를 더욱 더 잘 보존하고 계승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축하인사를 전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함께 봉독한 뒤 꽃과 향을 올리며 평화수호를 위한 실천에 앞장설 것을 부처님 전에 다짐했다.

혜경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 뜻과 달리 우리 민족은 긴 세월 분단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남북 불교도들은 분열과 대결이 사라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리규룡 서기장도 “평화통일은 누가 대신 해 줄 수 없는 우리가 함께 이룩해야 할 민족사적 위업”이라며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조국통일을 위한 자등법 범등명으로 삼아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대표단 방북은 종교와 시민사회 등 민간차원에서 교류의 물꼬를 트고 남

북 구중제 10만정을 전달했다. 전달식에 앞서 대표단은 조불련 관계자들과 일일 야수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금강원으로 자리를 옮긴 대표단은 조불련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합동 예불을 마친 대표단은 오후 3시30분 경 신계사에서 출발해 오후 5시쯤 군사분계선을 넘어 다시 돌아왔다. 총격 사망사건에 이어 연평도 포격 등 남북 대치 상황이 지속되면서 금강산을 언제 다시 갈 수 있을 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이날 남북 불교도들의 바람처럼 분단의 설움이나 아픔보다는 통일의 기쁨이 올 날을 기대해 본다.

신계사=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애독자 여러분가정에 지혜와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

부처님오신날 봉축 24면 발행
 5월18일자 신문은 습니다

알림 | 홈페이지 개편안내
 불교신문이 5월1일 홈페이지의 전면 개편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과 가깝고 친근하게 소통하는 언론으로서 다가옵니다. 홈페이지 개편으로 한 계단 더 도약한 불교신문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www.ibulgyo.com 불교신문사

전국 사찰녹색숲길 100선 걷기 캠페인

월호스님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및 건봉사 등공대 숲길 걷기

불교신문은 (사)세계걷기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사찰이 품고 있는 아름다운 숲길을 온 국민과 함께 걷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그 첫번째로 월호스님을 모시고 금강산 건봉사의 등공대 길(해탈의 길)과 소나무 숲길을 걷는 행사를 봄날의 산사음악회와 함께 진행하오니 생명과 환경을 사랑하는 불자 및 걷기 동호인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시 _ 2011년 5월 28일(토) 13:00~
 ■ 장소 _ 금강산 건봉사 일원

■ 주요 프로그램
 · 봄날의 산사 음악회 13:30~15:00
 -월호스님에게 듣는 『행복한 삶의 주인공』
 -트로트 황태자 박현민, 소리 여울 국악단 축하 공연
 · 등공대(해탈의 길) 걷기 15:30~16:30

※ 자세한 내용은 www.dww.co.kr 참조
 ※ 학생참가시 4시간 자원봉사증 발급
 ※ 노인복지, 장애시설 및 저소득계층 단체 참가(30명 이상) 차량 무료지원

참가문의 : (02)739-6699 (걷기 본부 사무국) 행사 참가비 무료 [단, 주최측에서 제공하는 교통편 및 숙식을 이용할 경우 소정의 비용(여행자보험 가입, 중식제공) 적용 - 당일 : 35,000원 / 1박2일 : 149,000원]